

‘민주 당대표 도전’ 김민석 전 총리, 전북 당원 지지 호소

“작지만 강한 메가 전북… 새만금 황금시대 열 것”

15일 전북 경선 앞두고
도의회서 기자회견 가져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메가플랜 추진 동력 달라”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전 국무총리)가 전북 경선을 앞두고 “전북의 미래는 김민석의 미래이자 운명”이라며 전북 180만 도민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작지만 강한 메가 전북으로 만들고 새만금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 메가플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새만금에 대한 오랜 정책적 관심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 자신이 총재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며 “2007년에도 새만금을 세계적인 최첨단 지식·문화 대특구로 집중 개발하는 구상을 제기했다”고 말하며 “새만금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며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전 새만금 대 특구를 꿈꾸던 아인 김만석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겸 새만금 위원장으로 새만금 전국 대혁신IT를 이끌며 현대차 투자 지원 속도전을 지휘하고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소 메가 전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지도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놔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2·3차 대기업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고 현대차 투자를 초고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수 협력기업 유치를 성사시키겠다”며 “미국과 중국 등 AI 관련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전국 금융 중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인 새만금 대협약을 통해 일부 수의 공유 모델을 공통화하고 새

만금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을 전북의 새만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새만금, 아시아의 새만금, 세계의 새만금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및 새만금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책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미국의 AI 투자 지원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의 합작 및 국내 투자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 측에도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해외 자본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 자원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자원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전북 소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디어와 추진력, 창의성을 갖춘 설계사와 추진가라며 “자신이 구체적인 명확한 전략을 갖고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당대표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2년 동안 전북 메가플랜을 민주당과 정부의 공식적인 플랜으로 안착시키겠다”며 “이를 민주당의 지속적인 강령적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전북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도 “익산도, 전북도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김민석이 전북과 새만금의 황금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8월 17일 전당대회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안정되면 잘하고, 흔들리면 죽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킬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에게 전북의 압도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 경선은 오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후보가 이날 제시한 ‘전북 메가플랜’과 새만금 대형 개발 구상이 전북 당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송영길 후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을 펼치면서 8·17 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승부처로 호남 표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호남의 핵심 승부처인 전북 경선이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180만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옥정호

녹조 대응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옥정호 내 유해남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녹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옥정호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녹조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취수부터 정수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국장은 칠보발전취수구와 칠보취수구, 산성정수장을 차례로 방문해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정읍권지사와 함께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녹조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녹조저감설비 가동 상태와 취수·정수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옥정호 유해남조류 측정 결과, 칠보취수구의 남조류세포수는 지난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검출되지 않았으나 8월 3일 479세포/㎖로 나타났다. 칠보발전취수구는 7월 13일 53 세포/㎖에서 20일 80세포/㎖, 27일 146 세포/㎖, 8월 3일 683세포/㎖로 증가했다.

도는 현재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최근 남조류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민에게 안전한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녹조 확산 방지와 수질관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유입 차단에도 나선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47병을 활용해 상수원 주변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읍시·임실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축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발령 이후 조치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녹조 확산 단계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폭염 속 건설근로자 보호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시설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도는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시군·국도안전관리원 합동으로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육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현장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비롯해 물과 휴식 제공,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육외작업 중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육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지원

민주 도당, 피해 소상공인 생업 복귀 위해 임시판매장 마련·긴급 지원체계 구축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임시판매장 마련과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과 생계 기반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는 단순한 위로보다 당장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은 상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만큼, 생업 공간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시판매장 설치 등 현실적인 생업 공간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장소 확보와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 상인들의 생계가 안정될 때까지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원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도당은 아울러 이번 화재를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에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해 유사한 화재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가나자와시, 자매결연

25주년 앞두고 교류 확대 모색

가나자와 시장 등 대표단, 오늘까지 전주 방문

양 도시간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 등 논의

국제자매도시인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 25주년을 앞두고 상호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무리야마 다카시 시장을 비롯한 가나자와시 대표단 10명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자매결연을 맺은 양 도시는 이후 행정과 전통공예, 스포츠, 도서관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은 오는 2027년 자매결연 25주년을 앞두고 시 차원의 정례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려는 가나자와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특히 시와 가나자와시 대표단은 전주 방문 이틀째인 11일 오전 조지훈 전주시장과 무리야마 다카시 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주-가나자와 정책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

발한 민선7기 전주시와 재선으로 민선 27기를 맞은 가나자와시의 주요 시장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인 교류 정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양 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주시마식, 가나자와시-공예 및 민속예술)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각 도시가 가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및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 도시는 지속적인 지식·문화 정보 공유를 위한 ‘전주시-가나자와시 도서관 우호 교류 협력(MoU) 경신 체결식’도 가졌다.

가나자와시 방문단은 이번 전주 방문 일정 동안 덕진공원과 청원루 등 전주시 주요 야간 관광 자원 시설 및 한옥마을 투어를 진행했으며, 연화정 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전북 혁신도시북한문화센터,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의 대표적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을 둘러보는 ‘전주시립도서관 여행’에 참여해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살펴봤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산업단지 조성 현장 폭염 안전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현장에 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조성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기본수칙’에 따른 폭염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시원한 물 공급, △작업장 내 그늘 제공, △휴식시간 운영, △개인 보냉장구 제공,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를 살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및 현장 관계자에게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보장, 근로자 건강상태 수치 확인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이만호 기자